

종로세무서 이전반대 건의안

의안 번호	1298
----------	------

제안연월일: 2007. 8. .

제안자: 강수길 의원외 4인

1. 주 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여러 세무서를 한곳에 모아서 운영하려는 계획은 지방자치시대에 흐름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로세무서가 중구로 이전될 경우 종로구 납세자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종로세무서의 중구 이전을 백지화 할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종로구는 조선 건국 초기부터 600여 년 동안 수도 서울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고, 청와대 등 각종 정부기관과 낙원상가, 세운상가, 동대문시장 등 많은 상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로세무서는 1944년부터 63년이 지난 현재까지 종로 구민의 세정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오고 있음.

최근 중구 남대문세무서 자리에 신축중인 건물에 남대문세무서와 종로세무서를 입주시킨다는 보도가 있는데, 전통과 문화의 고장 종로구에서 종로 구민과 함께 해온 종로세무서가 중구로 이전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지역 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탁상 행정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종로세무서가 중구로 이전될 경우 종로구 납세자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종로세무서의 중구 이전을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함

종로세무서 이전 반대 건의안

종로구는 조선 전국 초기부터 600여 년 동안 수도 서울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고, 청와대 등 각종 정부기관과 낙원상가, 세운상가, 동대문시장 등 많은 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종로구의 대표적인 행정기관의 하나인 종로세무서는 종로구 낙원동 58번지 8호에 소재하고 있으며, 1944년 경성세무서에서 분리되면서부터 63년이 지난 현재까지 종로구 세무분야의 중심기관으로서 국민의 세정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8월 현재 국세청 주관으로 재정경제부 소유로 되어있는 중구 저동 1가에 소재해 있던 남대문세무서를 헐고 그 자리에 지상 15층 규모의 민관 복합빌딩을 건립 중에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는 2008년도에 남대문세무서와 종로세무서를 입주시킬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중구 구민에게 세무행정을 제공하는 남대문세무서는 본래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지만 종로세무서는 기존 종로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구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과 문화의 고장 종로구에서 63년 동안 종로 구민과 함께 해온 종로세무서가 중구로 이전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지역 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탁상 행정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세원의 특성으로 보더라도 대형건물, 금융기관, 숙박업소, 병원, 대형아파트, 재래시장 등 다수의 세원이 종로에 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중구로 이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여러 세무서를 한곳에 모아서 운영 하려는 계획은 지방자치시대에 흐름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로세무서가 중구로 이전될 경우 종로구 납세자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종로세무서의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며, 지역 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행정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 종로구 주민이 원하지 않는 종로세무서의 중구 이전을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7. 9.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